

한화, 배수펌프장에 태양광발전소 건설

한화솔라에너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배수펌프장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했다고 6월5일 밝혔다.

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치동에 있는 산수배수펌프장 태양광발전소의 면적은 6만8449㎡로 2MW 규모(일반가정 670가구)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.

매년 약 2750MWh의 전력을 생산해 1160톤의 탄소를 절감하고 6700만원의 탄소처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. 865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도 기대된다.



특히 한화솔라에너지의 태양광발전소는 국내 최초로 배수펌프장이라는 유휴공간에 건설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.

이는 기존 국내 태양광발전소가 산과 임야 등 토지 개발을 통해 만들어지면서 국토면적의 손실과 환경오염 등 문제점들을 해소했기 때문이다.

여기에 배수펌프장이라는 특수한 입지조건을 고려해 수면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함으로써 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해 발전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.

한화솔라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, 건설, 운영, 자금조달에 이르기까지 태양광 전 영역에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다.

지난 6월2일 경남 창원에 국내 최대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했고 유럽, 북미 등 선진국뿐 아니라 동남아, 남미, 아프리카 등으로 해외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6/05>